너와 나를 다시 이어줄 새로운 세계

IEUM

IEUM | 권제이, 박시후

BUSINESS PROPOSAL

목차

Chapter 1. 개발 배경

Chapter 2. 기존 서비스의 한계

Chapter 3. 주제 해석

Chapter 4. 핵심 기술

Chapter 5. 전체 흐름

Chapter 6. 데모 시연

Chapter 7. 기대효과

Chapter 8. 방향성

Chapter 9. 마무리

Chapter 1.

개발 배경



떠나보낸 뒤에도
그 곁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은 마음.

주변과 온라인에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조금이라도 위로를 전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함께한 반려동물을 잃는 슬픔을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그리움만큼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반려동물이 다시 내 앞에서 걷고 나를 향해 돌아본다면,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사진 속 반려동물이 다시 나를 돌아본다면 어떨까.

Chapter 2.

기존 서비스의 한계

1

사진과 영상

- 생김새와 순간은 남지만 반응이 없음
- 같은 장면만 반복해서 볼 수 있음
- 부르거나 만질 수 없는 일방적인 기록

2

가상 펫 게임

- 정해진 캐릭터라서 '내 반려동물'이 아님
- 외모도 성격도 실제 반려동물과 다름
- 돌보기 위주라서 기억과 이어지지 않음

3

직접 3D 제작

-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 전문 지식 필요
- 제작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큼
- 보호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

Chapter 3.

주제 해석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에게, 다시 만날 세계를 선물합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 사람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그리움 속에 있는 보호자입니다. 휴대폰 속 사진으로만 반려동물을 볼 수 있던 보호자에게, 다시 내 앞을 걷고 나를 향해 돌아보는 순간을 건넵니다.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그리움을 천천히 정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세계

창가가 있는 따뜻한 거실에서 쉬고, 보호자의 행동에 반응하고, 손길이 닿으면 편안히 몸을 낮추는 모습까지 담았습니다. 반려동물의 생김새와 성격을 닮은 작은 집입니다. 보호자가 기억하는 성격을 설정하면, 반려동물이 스스로 고르는 행동에 반영됩니다.

Chapter 4.

핵심 기술

기준 이미지

사진을 3D용 전신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반려동물의 사진을 최대 4장까지 올리면, 브라우저에서 압축한 뒤 OpenAI 이미지 모델이 얼굴 무늬, 털색, 눈 색을 지키면서 네 다리와 꼬리가 모두 보이는 앞쪽 3/4 전신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보호자가 닮음, 방향, 다리, 비율 네 가지를 직접 확인하고 승인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D와 움직임

승인된 사진으로 걸을 수 있는 3D를 만듭니다.

Tripo AI API를 직접 연동해, 승인된 사진으로 텍스처가 입혀진 3D 모델을 만들고 리깅 가능 여부 검사, 네 발 동물 리깅, 걷기 동작 연결까지 자동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모델 버전과 메시, 텍스처 품질을 고르면 예상 크레딧이 바로 계산되고, 같은 요청이 두 번 결제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완성된 모델은 계정별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되어 다시 열 때 새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간과 교감

성격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웹에서 모델의 골격을 분석해, 관절이 빠졌거나 어긋난 모델도 몸 형태를 기준으로 네 다리, 몸통, 머리, 꼬리를 다시 잡습니다. 그 위에서 걷기, 앉기, 쉬기, 쓰다듬기, 먹기, 놀이, 점프가 작동하고, 발은 이동한 거리만큼 걸음을 옮기며 꼬리는 끝으로 갈수록 크게 흔들립니다. 보호자가 정한 성격 값에 따라 스스로 고르는 행동이 달라지고, 휴대폰 브라우저에서도 표시되도록 렌더링 방식을 따로 최적화했습니다.

Chapter 5.

전체 흐름

사진 업로드	같은 반려동물의 사진을 1~4장 올리면, 브라우저에서 압축해 전송량을 줄여 보냅니다.
기준 이미지	OpenAI가 얼굴 무늬, 털색, 눈 색을 지키며 네 다리와 꼬리가 보이는 앞쪽 3/4 전신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보호자 확인	닮음, 방향, 다리, 비율 네 가지를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승인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D 생성	3D 생성의 옵션을 선택하면, Tripo AI API가 승인된 사진을 텍스처가 입혀진 3D 모델로 만듭니다.
리깅 · 걷기	리깅 가능 여부를 검사한 뒤 네 발 동물 골격과 걷기 동작을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저장 · 교감	완성된 모델은 계정별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되고, 휴대폰 브라우저에서 바로 열어 교감할 수 있습니다.

Chapter 6.

데모 시연

LIVE DEMO

사진 밖으로, 다시 내 앞에

사진 속에만 머물던 반려동물이 다시 걷고, 앉고, 손길에 반응하는 순간을 지금 함께 보여드립니다.

Chapter 7.

기대효과

누구나 만드는 3D

전문 지식 없이 사진 1~4장이면 충분합니다.
사진 속 반려동물을 움직이는 3D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는 경험

부르면 다가오고, 장난감을 보면 뛰어오릅니다.
바라보기만 하던 사진이 반응하는 기억이 됩니다.

내가 알던 그 모습

보호자가 기억하는 성격을 직접 맞춰 줍니다.
성격에 따라 스스로 고르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천천히 하는 이별

한 번 만난 반려동물은 계정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가 그리움을 천천히 정리합니다.

Chapter 8.

방향성



IEUM이 그리는 모습

- 그리움을 한 번에 끊어 내지 않아도 괜찮도록,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보기만 하는 사진 속 모습이 아니라, 걷는 모습과 작은 반응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특별한 지식 없이도 사진 몇 장이면 누구나 반려동물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더 쉽고 가까운 서비스로 넓혀 가겠습니다.

그리움이 다시 만남이 되는 곳, IEUM

감사합니다.

E-mail. jaykwon615@gmail.com